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서의  
한국어교육 정책 개선방안

이 관 식(Lee, Kwon-sik)\*

(E-mail : geniks@honam.ac.kr)

논문접수일 : 2010년 4월 1일

논문심사일 : 2010년 4월 26일

게재확정일 : 2010년 5월 17일

---

\* 학위취득대학 : 경희대학교

현직 : 호남대학교 교수

##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서의 한국어교육 정책 개선방안

### <국문요약>

본고는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서의 한국어교육 지원정책 실태와 이 지역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한국어교육 현황을 살펴 본 뒤 이의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한 연구물이다.

연구 결과 한국어 학습자 실태조사 통계 수치의 부정확 및 단기적·일회성 성격의 사업이 많은 점 등의 지원 정책의 비효율성, 한국어교육이 포함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부족, 그리고 한국어교육에 대한 지원체계 미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었고, 한국어교육 지원정책의 개선 방안으로는 관련 현황의 정확한 통계 수립, 지원 정책의 다양화와 특성화, 효율적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의 증설, 한국어교육 지원 체계의 강화, 그리고 지역 거버넌스 체제의 확립 등을 제시해 보았다.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한 각종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의료, 법률 지원도 원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어교육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높다. 이처럼 다문화가족들에게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이 강하다는 것은 일회적·형식적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을 바란다는 것임은 물론 수준별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단계의 교육을 원하는 것이며, 나아가 더 높은 단계의 심화교육도 요구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인식해야 한다. 그리하여 관련 기관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서의 한국어교육 부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새로운 지원정책을 설계하고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한국어교육 지원 정책, 광주광역시

## I. 머리말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sup>1)</sup>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약 2.2%에 해당하는 110만 6,884명에 달하며, 이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들의 지속적인 국내 정착 생활로 인해 다문화가정 또한 나날이 증가하여 그 수가 167,090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국제결혼이나 노동이주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들은 각자의 고유한 민족적 특징과 문화적 배경을 지닌 채 우리의 이웃으로 다가와 이들이 구성한 다문화가정<sup>2)</sup>은 이미 우리 한국 사회를 다문화 사회로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다.

- 1)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 5월1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110만 6,884명으로 주민등록인구(4,959만 3,665명)의 2.2%이며, '08년 89만 1,341명보다 21만 5,543명이 증가(24.2%)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925,470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83.6%에 해당('08년 대비 101,368명 증가, 12.3%)하며, 외국인근로자는 575,657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52%('08년도 대비 137,930명 증가, 31.5%), 결혼이민자는 125,673명으로 11.4%('08년도 대비 22,960명 증가, 22.4%), 외국인주민 자녀는 107,689명으로 9.7%('08년도 대비 49,682명 증가, 85.6%), 그 외에 전체 외국인주민 중 유학생은 77,322명으로 7%, 재외동포는 43,703명으로 4%, 기타 외국인(상사주재원 등)은 103,115명으로 9.3%에 해당('08년 대비 유학생 37.4% 증가, 기타 외국인 39.7% 증가)한다고 발표하였다.(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조사결과', 2009. 8. 5)
- 2)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의는 그 구성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로 확대할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주로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로 구성된 가정 및 그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한편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비해 학계의 관련 논문이나 일반 사회에서는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정부 정책이나 제도적인 면에서는 '다문화가족'을, 구성원 개개인, 특히 자녀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나의 사회 속에서 두 가지 이상의 문화가 혼재되어 발생하는 이러한 문화 변화의 저변에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상호 영향을 끼쳐 양질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거니와 더러는 서로 조화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두 문화 집단 간의 갈등을 빚기도 한다. 특히 오랜 세월동안 국가와 민족을 동일시해 오면서, 사회 통합의 수단이자 외세에 저항하는 동력이었던 한국의 독특한 민족주의는 ‘순혈주의’와 ‘단일민족’ 라는 정서와 결합하여 외국에서 온 이방인들을 수용하기를 꺼리면서 이 사회에 진입해 오는 소수의 결혼 이민자들에게 동화를 강요하여 그들을 한국인으로 만들려고만 하는 등 이 시대가 원하는 민족주의와는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한 결과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2007년 8월 한국 정부가 제출한 제13차, 14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심의결과를 담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하면서 “한국이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인종차별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인종과 타 국가 출신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권고<sup>3)</sup>하기도 한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비록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통해 형성된 집단적 가치를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어렵고 또한 급격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주는 충격

---

3)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는 한국 사회가 단일 민족성을 강조함으로써 한국 영토 내에 살고 있는 다른 인종과 타국적인 사이의 이해, 관용과 우정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및 “순수혈통”, “혼혈”이란 용어 사용과 그로 인한 특정인종 우월주의가 한국사회에 광범위하게 계속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면서 한국정부에 대하여 현재 한국 사회의 다민족 성격을 인식하고 한국의 이미지를 단일 인종국가임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 문화, 정보 등 분야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구체적으로는 초·중·고교과정에 한국 내에 다른 인종과 타국적인에 대한 역사, 문화는 물론 모든 인종, 타국적인 사이의 이해, 관용과 우정을 증진하기 위한 인권의식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다(제 71차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심의 결과 발표 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보도자료’, 2007. 8. 21).

이 적지 않더라도 이들을 수용하는 다수의 우리 사회 구성원들 스스로가 다른 문화를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의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국가사회 구성은 혈통적으로 동질적인 특정 집단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의식에 바탕을 둔 구성원들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의 한국 사회에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민간단체와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문화를 이해하고 이들 소수자를 배려하려는 인식의 전환과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과거 국제기구 원조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까지 받았다가 이제는 OECD회원국 가운데 24번째로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여 원조공여국으로서의 지위를 갖추고, 또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중재자, 균형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의 국격에 걸맞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상적인 다문화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인권 보호, 문화 혜택, 복지 향상 등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데, 특히 다문화가족들이 이 사회의 실질적인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수단인 한국어 구사 능력이 절실하기에 이들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이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논의한 최근의 연구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동훈(2009, 20)에서는 다문화사회를 맞이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고, 이병규·구지민(2009, 101)에서는 다문화사회의 언어지원 정책을 진단해 보면서 정부 각 부처별로 분산된 다문화 지원 정책을 체계화해야 하며, 지원 대상과 한국어교육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화함에 따라 정책 방향도 확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신은주(2009)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지방 정부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 정부의 과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8)은 지방 자치단체

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으며, 강희숙(2009)은 새로운 다문화 공동체 구성을 위해 다문화 네트워크의 객관적 이해 및 사회 통합 방법 모색을 위한 연구 활성화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지역 사회와 대학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성기철(2008)에서는 다문화사회에서의 언어 교육의 과제를 제기하면서 언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상규(2008)는 다문화 가정 대상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과제를 논하면서 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육 수요층의 분석과 현실에 맞는 교원 양성, 그리고 교육 과정 및 교육 자료 개발의 효율성이라고 그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중 특히 한국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물로서 최정순(2008)은 다문화 시대 한국어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과제로서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연구의 활성화와 교과 내용학의 정립 등 다문화 시대를 맞아 실질적인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서 혁(2009, 2006)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다문화 가정 및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에 대한 논의로서 김선정(2008), 박동호(2008), 방성원(2008), 오은순(2009), 이세연(2009), 조향록(2010), 채윤미(2009) 등을 볼 수 있다. 이 중 조향록(2010)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안을 제시하면서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정 자녀가 한국인으로서의 평균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육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또 이를 위해서 교육계를 포함한 국가 사회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함을 피력하였다.

한편 광주광역시의 다문화 관련 정책이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논의한 연구물로서 김경신(2009)은 광주광역시의 2008년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결혼이민자 여성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생활 수준과 심리·문화적 특성, 그리고 적응 실태 및 사회적 지지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관련 정책 대안까지 제시하였으며, 이천영(2009)에서는 광주·전남 지역 이주민 가정 자녀 현황 및 학교 교

육 실태를 보이면서 지역 사회와 교육 당국의 관심이 필요함을 제기했고, 한신애(2009)는 광주 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자로서의 체험한 사례들을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주순일(2009)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서의 민간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인주민 중 결혼이주민과 외국인노동자들에 의해 구성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효율적인 발전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 자료 구축을 위해 광주 지역 다문화가족<sup>4)</sup> 지원 사업에서의 한국어교육 관련 지원 정책 실태를 분석하여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광주광역시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어교육 지원정책 실태와 이 지역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한국어교육 현황 및 문제점을 기술한 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한국어교육 지원정책

### 1.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현황<sup>5)</sup>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주무부서인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원 사업을 알아보기 위해 광주시의 다문화가족 현황,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방향,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

4) 광주광역시의 결혼이민자수는 2010년 3월 기준 2,677명으로서 울산시의 2,503명보다는 많으나 다른 광역시에 비해 그 수가 적은 편이다.(인천 7,696명, 대구 3,926명, 대전 3,118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월 통계월보)

5) 관련 자료는 광주광역시 여성정책관실의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현황’(2009. 11)에 의거해 작성한 것임.

정책목표,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추진체계, 2010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현황 등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한다.

### 1) 다문화가족 인구 현황

광주광역시의 다문화가족 수는 2009년 기준 3,276명으로서 전국 167,090명의 1.9%에 해당하는데, 자치구별 다문화가족 인구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다문화가족 현황

구분 자치구	주민등록인구	다문화 가족	국적취득		국제결혼 자녀	비고
			미취득	취득		
합계	1,425,334	3,267	2,479	788	2,393	광주광역시 전체 인구 1,425,334 명 대비 0.2%
동구	106,400	227	176	51	147	
서구	304,263	576	450	126	360	
남구	213,649	395	333	62	314	
북구	474,345	1,100	838	262	819	
광산구	326,677	969	682	287	753	

(광주광역시 2009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현황,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광주광역시의 다문화가족은 주민등록인구의 0.2%에 해당하며 다른 자치구에 비해 북구와 광산구에의 비중이 높다. 물론 이들 자치구의 주민등록 인구 수에 비례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주요 이유로는 두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단지 시설이 많아 취업이 용이하고 또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 2) 다문화가족 출신국가별 현황

한편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의 출신국가별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출신국가별 현황

구분 계	중국	조선 족	베트 남	필리 핀	일 본	몽 골	태 국	인도 네시 아	중앙 아시 아	미 국	러시 아	기 타
3,267	1,013	743	696	322	111	62	58	6	47	28	13	168

출신국가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국과 동남아 국적자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한국 전체의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의 출신국가별 국적자 수와 비례<sup>6)</sup>한다.

## 3)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방향

광주시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방향은 ‘1등 광주 건설을 위한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를 비전으로 하여 <표 3>과 같이 ‘정착, 지원, 교육, 협력’의 4가지 부문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3>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추진방향

정착	지원	교육	협력
결혼 이민자 역량강화	다문화가족 안정적 생활	자녀와 가족 건강한 성장	다문화사회 이해 증진

6) 2009년 주요 유형별 외국인주민의 국적 분포를 살펴보면 외국인근로자 575,657명 중 중국(조선족)이 60.3%(55.9%), 동남아 24.3%, 남부아 5.7%, 중앙아 2.4%, 몽골 2.3% 순이며, 결혼이민자도 총 125,673명 중 중국(조선족)이 54.8%(28.2%), 동남아 32.1%, 일본 4%, 몽골 1.8%, 중앙아 1.5% 순으로 중국(조선족)과 동남아 국적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위의 자료).

#### 4)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정책목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정책목표는 위의 지원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 및 정보 제공, 의료 및 법률 지원, 피해 보호, 사회구성원의 인식 변화, 취업 지원 등 다섯 가지로 제시(<표 4>)하고 있으나 사회적응에 꼭 필요한 한국어교육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아쉽다. 그럼에도 그 지원 사업의 목표에 다문화가족만이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목표로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표 4>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정책목표

-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교육 및 정보제공으로 초기 안정적 정착 지원
- 다문화가족에게 체계적인 의료·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생활 지원
-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 교육 및 폭력 피해 보호·지원 내실화 도모
- 사회구성원의 다문화 인식전환으로 사회통합 추진
- 결혼이민자의 능력개발과 취업지원으로 성공적 정착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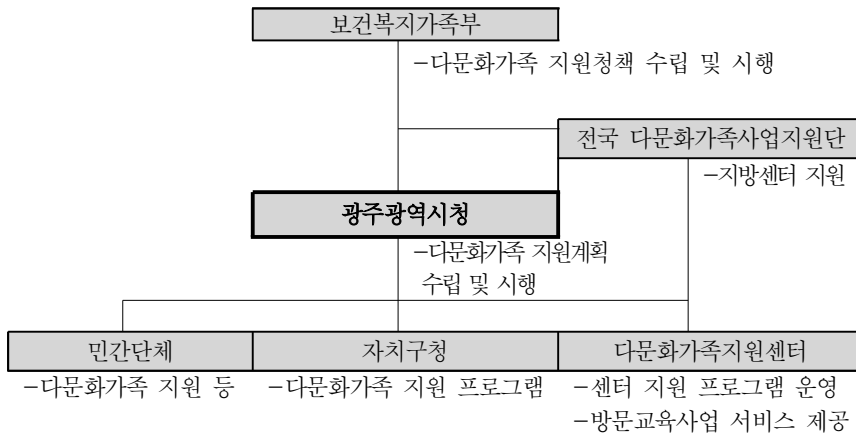
#### 5)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추진체계

광주광역시의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는 중앙정부의 보건복지가족부<sup>7)</sup>와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전달체계를 위탁받아 전국 시도·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전국 다문화가족 사업단’과의 연계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에는 5개의 자치구청 및 2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여러 곳의 민간단체들이 지원업무를

7) 정부는 3월 9일 국무회의에서 직제개정령안을 의결하여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개정된 정부조직법과 양 부처 직제의 시행은 2010년 3월 19일부터이다.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업무 추진 체계도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추진체계



### 6) 광주광역시의 2010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광주에서 계획하는 2010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종류는 10가지가 넘는데 주로 교육, 의료, 법률 지원 및 행정 지원업무로서 각 지원 사업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

광주에는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광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두 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sup>8)</sup>가 있어 다문화가족들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그밖에도 올해부터는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도 지원을 시작하고 있어 모두 3곳의 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주로 인건비,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비 등이고 이들 센터의 주요 사업은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가족교육, 상담, 취·창업 지원 사업 등이다.

8) 전국 다문화가족사업단 지역센터의 현황을 보면 2009년 9월 현재 국비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00곳, 지방비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9곳, 도합 119곳이 있다.

(2)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

위의 센터 3곳이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서비스’ 및 ‘한국어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사업종사자 39명의 인건비를 지방비로 보조하고 있다.

(3)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역시 위의 센터 3곳이 시행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상담’이나 ‘법원 등 유관기관 통번역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통번역 종사자 8명의 인건비를 국비와 함께 지원하고 있다.

(4)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부모와 자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자녀 언어발달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위의 3개 센터를 대상으로 언어지도사 3인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보강 지원

증가하는 광주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 종합센터인 두 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소 이전·확장에 따른 시설보강 지원<sup>9)</sup>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9)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장 규모 계획>

센터명	시설규모 (연면적)	소재지	이전일자 (예상)	사용 형태	수용가능 연인원(명)	이전시 증가 연인원(명)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337.6m <sup>2</sup> (중 129.6)	북구 신안동 237-1	2009년 10월	임대	34,810여명	8,000여명
광산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319m <sup>2</sup> (중 129.6) 지하2층, 지상5층	광산구 송정동 802-4	2010년 3월	매입	21,880여명	10,000여명

(6)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국제결혼 예비배우자 또는 국제결혼 부부 대상 사전 교육 사업인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기관인 (사)다문화가정복지회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주된 사업 내용은 다문화 사회와 양성평등, 관계와 소통, 국제결혼 관련법률, 사례발표 등이다.

(7) 다문화가족 의료·법률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암 검진 및 치료비 지원과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하는 자치구 및 검진기관 지원의 의료 서비스 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광주지방검찰청, 법률구조공단, 가정법률상담소, (사)광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생활법률 및 인권보호 교육, 법률상담 등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8) 자치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시비 보조

자치구별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을 지원하는 ‘자치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시비 보조’ 사업은 한국어교육 및 취업과 창업 교육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9) 다문화가족 지원 민간단체 보조

다문화가족 지원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를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민간단체 보조’ 사업은 사업 공모를 통해 대상사업 선정하는데 주로 한국어교육 및 사회적응 정보제공이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직업 훈련 등을 내용으로 한다.

(10) 국제결혼 이주여성 취업 지원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교육하는 전문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공모 후 이주여성의 취업교육과 맞춤형 직업훈련 등을 통해 취업을 연계해 주는 사업을 지원한다.

(11) 다문화가족 인권 보호·지원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인권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인권침해 실태의 조사활동 및 보호와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사업기관인 (사)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권침해 특별 지원단 구성·운영 사업을 지원한다.

(12) 다문화가족 페스티벌 개최

2008년 9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과 광주지방검찰청과 체결한 다문화가족 보호·지원 업무협약서(MOU)에 의거 올해 9월에 (사)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주관하게 하여 1,000여명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페스티벌을 개최하려는 사업이다.

(13) 다문화가족 인식전환 홍보 사업

이 지원 사업의 내용은 다문화가족 생활정보 제공 책자 제작지원과 다문화가족 한글교육 교재 지원 및 다문화가족 인식전환 홍보 등인데, 2009년에는 다문화가족 생활정보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3만 1천부를 제공한 바 있으며, 한국어 교재 400부를 구입 지원하였고 또 사회통합 언론 홍보를 위해 TV에 spot 방송을 하기도 하였다.

(14)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및 쉼터 운영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직접 상담·긴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광주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또, 2008년에 설치한 비공개시설로서 이주여성 피해자에 대한 숙식 제공, 상담·법률·의료 및 자립지원 등의 일을 하는 이주여성 쉼터 운영사업을 지원하는데 이의 운영기관은 재)천주교사랑의 씨튼수녀회이다.

## 2. 한국어교육 지원정책 현황

### 1) 사업별 한국어교육 지원정책 현황

광주광역시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중에서 한국어교육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지원 사업은 두 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인건비 및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 역시 북구와 광산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으로서 이들 기관이 집합교육이 어려운 입국 3년 미만의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교육을 하는 종사자 39명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사업에서는 한국어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교육’ 지원 사업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교육실시에 따른 언어지도사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보강’ 지원 사업은 직접적인 한국어교육이 아닌 사업 기관의 확장에 따른 시설 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다문화가족 의료·법률 서비스 지원’에서는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치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시비보조’ 지원 사업은 각 자치구의 한국어교육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족 지원 민간단체 보조’ 사업에서는 사업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그들의 한국어교육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결혼 이주여성 취업 지원’ 및 ‘다문화가족 인권보호·지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페스티벌 개최’ 사업에는 한국어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문화가족 인식전환 홍보 사업’을 위해서는 한국어 교재를 구입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및 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한국어교육이 포함되지 않아 광주시가 지원하는 전체 사업 중 6개 사업이 직접적인 한국어교육의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 2)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의 한국어교육 현황

이 지역에서 다문화가족 대상의 한국어교육을 지원하는 관련 기관의 양상은 국내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다. 즉 각 시도의 담당 부서를 비롯하여 전국 다문화가족 사업단의 지원을 받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자치구의 다문화가족 지원부서, 그리고 종교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에 의해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광주광역시에도 이러한 기관·단체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교육의 지속성 결여 및 불규칙성, 관련 단체들의 잦은 신설과 소멸, 그리고 그 규모 기준성의 모호함에서 비롯되는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한국어교육을 지원하는 관련 기관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쉽지 않아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sup>10)</sup>에 의거하여 한국어교육 현황을 조사<sup>11)</sup>해 보았다. 다음의 <표 6>은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한국어교육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6>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한국어교육 현황

구분 연번	기관 및 단체명	교사수 (방문 교사수)	학습자수 (방문 가정 수)	교육유형	사용 한국어 교재	1주당 교육 시수	기관 설립일
1	동구 건강 가정지원 센터	2 (18)	20 (18)	집합교육 방문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자료 활용	주1회 (초, 중급)	2006.8.1

- 10) 2010년 1월의 자료에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14개의 기관·단체명, 대표자 이름, 기관 설치일, 소재지 주소, 종사자 수, 연락처 및 e-mail 주소를 포함하여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와 비공개 시설인 이주여성쉼터 두 곳 등 16개 지원 시설 현황이 조사되어 있다.
- 11) 교사 수, 학습자 수, 교육 유형, 사용 한국어 교재, 주당 교육 시수 등 한국어교육 관련 현황은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거나 담당자와의 전화통화를 하여 파악하였다.



2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4	40	집합교육	국립국어원 교재	주4회 1회 90분 (초, 중급)	2009.3.9
3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이주가족복지회	2 (10)	80 (40)	집합교육 방문교육	국립국어원 교재 자체 제작 교재	주5회 (초급) 주 2-3회 (고급) 1회 2시간	2008.3.1 (06.6.23)
4	광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민사목센터)	9 (24)	100 (96)	집합교육 방문교육	국립국어원 교재 자체 제작 교재	주5회 1회 90분 (초, 중, 고급)	2009.1.1
5	사)무지개다문화가족	2	10	집합교육	국립국어원 교재	주2회 1회 2시간	2006.12.27
6	사)다문화가정사랑회	6	50	집합교육	국립국어원 교재 연세대학교 교재 자체 제작 교재	주5회(초급) 주 2-3회 (중급) 주 2회(고급) 1회 2시간	2007.3.30
7	사)다문화가정복지회	3	30	집합교육	국립국어원 교재	주3회 1회 2시간 (초, 중, 고급)	2007.9.10
8	사)한국다문화교육정책개발원	-	-	집합교육	-	-	2008.2.12
9	사)광주지구촌	1	10	집합교육	자체 제작 교재	주2회	2008.8.8
10	사)희망나무	-	-	집합교육	-	-	2008.8.25
11	그루터기다문화가정지원센터	3	45	집합교육	국립국어원 교재 선문대학교 교재	주3회 1회 2시간 (초, 중, 고)	2008.11.25
12	사)어울림다문화센터	1	10	집합교육	자체 제작 교재	주1회 주말반 (초, 중급)	2009.10.9
13	사)한울(이주여성인권위원회)	-	-	-	-	-	2009.12.29 (08.4.28)
14	새날학교 (광산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45 (전체 교직원)	유, 초, 중, 고 과정 학생 72명	집합교육	-	학교 자체 교육과정	2007.1.18 (04.3.6)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서의 한국어교육 정책 개선방안 127

위의 기관 및 단체 중 광주시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곳은 건강가정지원센터<sup>12)</sup> 중 서구 센터와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광산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두 세 곳이고 나머지 기관 및 단체들은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곳에 한하여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어교육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방문지도교육과 집합교육의 두 유형으로 나뉘지만 방문지도사의 인건비 및 사업 수행 능력의 차이로 인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없는 경우는 모두 집합교육만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 사랑 나눔 나들이’ 사업이나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한국음식 만들기’ 행사 등 한국문화 적응 교육과 함께 한국어교육도 시행하고 있는데 동구 센터는 주 1회 집합교육과 함께 방문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서구 센터는 주 4회의 한국어교육을 센터에 모아서 시행하고 있다.

2008년에 설립된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sup>13)</sup>는 독립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sup>14)</sup>로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많게는 주 5일까지 수업을 하고 있으며 방문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고급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준비반을 주3회 2시간씩 운영하고 있고 또 통·번역반도 운영하는 등 한국어교육 수준이 다른 기관에

- 
- 12) 건강지원센터는 전국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어 가족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직접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관은 아니지만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 다문화가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 13)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어교육, 가족교육·상담, 정보 제공,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 14) 독립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단체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받고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센터를 말하며,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중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받고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센터를 지칭한다.

비해 현저히 돋보인다.15)

광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천주교광주대교구 사회복지법인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16)가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취업교육, 가족교육, 법률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어 학습반도 주 5회 운영하며, 2개의 초급반과 중급 및 고급 각 1개반, 그리고 한국어능력시험 준비반으로 구성하고 있다.

(사)무지개다문화가족은 주 2회 정도 10 여명의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함께 교육하는 작은 규모의 집합교육기관이며, (사)다문화가정사랑회는 자체 회원 지원금으로 운영하는 단체로서 타 민간단체에 비해 운영 상태가 좋은 편으로서 50 여 명의 학습자를 수준별로 분류하여 학급을 운영하며 6명의 한국어 교사와 자녀들을 돌보아 주는 6명의 보육교사들이 이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사)다문화가정복지회는 초, 중, 고급의 학습자 30 여 명을 대상으로 3명의 교사에 의해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한국다문화교육정책개발원은 2008년 개설 당시에는 월 1회 결혼이민자 여성과 한국인이 함께 독서 및 경제 공부를 하면서 한국어교육을 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중단된 상태이다. (사)광주지구촌은 10명 정도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1명의 교사가 한국어학습을 하고 있다. 사)희망나무는 장애우에 대한 지원 사업을 주로 하는 단체로서 한국어교육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루터기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의 권익과 정착, 자

---

15) 하지만 어느 센터나 갖는 고충이지만 이 기관도 운영 주체인 (사)이주가족복지회가 337.6㎡인 현 장소를 임대하여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적은 예산과 상근 직원 2명으로 많은 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또 적지 않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어 어려움이 커서 100여명의 후원자가 운영을 돕기 위해 성금을 지원하고 있다.

16) 광주지역에서 최초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실시한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립을 돕기 위한 기관으로서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무지개지역아동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이주여성을 위한 한글교실에서 50명 정도의 학습자를 초급, 중급반으로 나누어 주3회에 걸쳐 3명의 한국어교사가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방학 중에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사)어울림다문화센터는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이해 도모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는 단체로서 한국어교육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 10여명 정도의 학습자를 위한 주말반 만을 운영하고 있다. (사)한울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려는 예비 신랑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한국어교육은 올 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단체이다. 2007년에 설립된 새날학교는 익히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진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자녀를 위한 대안학교이다.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유, 초, 중, 고등과정으로 나누어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꼭 필요한 한국어교육과 자국어 교육을 병행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 말 기준 7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교직원 수는 45명으로서 수업료는 무료이다.

이외에도 광주시의 현황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크고 작은 많은 단체들이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나름대로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한국어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금호평생교육관은 시교육청 산하기관으로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글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광주 국제교류센터는 학비 유료 기관으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대상은 주로 원어민 강사와 유학생, 이주 여성들로서 비교적 고학력자에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습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광주시에는 19개의 사회 복지관이 있어 그들 고유의 사업과 함께 결혼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sup>17)</sup>, 자치구인 남구청 평생 학습과의 다문화지원팀의 경우 지역 대학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다

---

17) 광주에는 동구 1곳, 서구 5곳, 남구 3곳, 북구 7곳, 광산구 3곳 등 모두 19곳의 복지관이 있어 그 중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을 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문화가정 상시 프로그램 운영 및 한글 교실을 운영하는 등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서의 한국어교육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주민자치 센터와 종교기관 등에서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 III. 한국어교육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1. 한국어교육 지원정책의 문제점

##### 1) 지원 정책의 비효율성

첫째, 한국어 학습자 실태 및 통계 수치가 정확하지 못하다. 효율적인 한국어교육 지원정책 시행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습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다. 왜냐하면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구축되어야 적절한 예산 배정과 사업 규모의 효율적인 책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계를 목적으로 한 인근 대도시로의 잦은 이주와 다문화가정임을 이웃에 알리기 꺼려하는 일부 가정 혹은 불법체류자 등의 현실이 이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를 담당하는 행정 기관에서조차 한국어 학습 수요자에 대한 실태 및 정확한 통계 수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둘째, 단기적, 일회성에 그치는 지원 사업이 있다. 지속적이어야 할 한국어교육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원 사업이 예산 재정 문제나 운영 문제로 단기적,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셋째, 특성화된 사업 및 프로그램 부족하다. 지역 사회의 특성이나 다문화가정의 상이한 유형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사업 및 프로

그램이 시행되어 학습 대상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 2) 재정 부족 및 한국어교육 지원체계 미비

첫째, 한국어교육이 포함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서의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 일례로 ‘다문화가족 지원 민간단체 보조’ 사업의 예산 책정이 5,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10여개의 단체가 지원을 해서 비록 1개 단체가 선정이 되더라도 불과 2~3명의 인건비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재정의 부족은 학습 공간과 시설의 부족으로 이어져 교육의 수준을 떨어뜨리게 되며, 특히 학습자를 직접 대하는 한국어 교사들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지원이 불가능하여 대부분 자원 봉사자에 의존하게 된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친 무보수 교육은 교사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결여시켜 궁극적으로는 학습자의 수준 저하를 초래한다.

둘째, 지자체를 포함한 국가 주도의 지원 정책의 한계이다. 정부 주도의 지원 정책은 어쩔 수 없이 합법적 신분을 보유한 외국인체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어 이들 말고도 불법 체류자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에의 지원을 위한 학교 기관 및 민간단체의 관심이 요청된다. 아울러 국가 주도의 지원 정책은 다문화사회의 다양성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도 하며, 민간단체에 비해 절차상의 과정과 경직성으로 인해 변화 대처에 신속하지 못하다

셋째, 민간단체의 기능 및 역량 부족이다. 정부 기관과 함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하는 한 축인 민간단체들이 재정 능력 및 인적자원의 한계로 인해 산발적이고 단기적인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속적인 특성을 지닌 한국어교육이 꾸준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민간단체의 특성상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로의 적응과 동화를 강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나치게 한국어 학습을 강요하여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한다.

## 2. 한국어교육 지원정책의 개선 방안

### 1) 지원 정책 개선 및 강화

첫째,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서의 한국어교육 지원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면 무엇보다도 학습자를 포함한 관련 현황의 파악이 정확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민자 분포 지도를 작성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작은 행정 단위인 지역의 동장 및 통·반장을 활용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다.

둘째,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의 특성화와 다양화가 필요하다.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과 함께 지원정책의 지속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된 사업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증설이다. 민간단체의 능력만으로는 사업을 수행에 필요한 재정 문제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넷째,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재정 확대 및 효율적 지원이다. 한국어교육이 포함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정 문제로서 중앙 정부의 다문화가족 대상 보조금 확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우선 배정이 요구된다. 아울러 유의할 점은 반드시 예산 배분의 공정성과 함께 효율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 기관의 지나친 사업 확대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은 관련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민간단체와의 사업 영역에서의 갈등과 충돌은 물론 예산을 확보하려는 일부 단체의 줄서기 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복 서비스 및 서비스의 누락이 없는지 여부도 점검하면서 사업 시행과 예산 집행에의 부단한 확인이 필요하다.

## 2) 기타 효율적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

첫째,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기구 및 부서를 설치하여 분산된 지원 부서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장 작은 행정 단위인 자치 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확한 학습 수요 파악과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NGO, 종교단체, 직장, 학교, 지역, 사회봉사단체 등의 기능을 활성화한다. 특히 이들 단체는 정부 기관이 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의 권익 대변 및 불체자가족 자녀의 한국어교육 문제를 지원할 수 있어 이들의 기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한국어교육을 연계한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영역별 사업인 법령, 요리, 임신, 출산, 육아, 의료, 문화, 자녀교육, 직업훈련 등의 사업에 한국어교육을 필수적으로 연계하여 지원 사업 간의 상승적 효과를 기대해야 한다.

다섯째,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참여 유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여섯째, 단체 및 개인의 자원봉사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 기관에 소속한 학생이 자원 봉사 시에 전공분야에 해당되는 각 영역인 한국어교육, 사회복지, 평생교육, 유아 교육, 아동 보육 등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지역 대학교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를 제도화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일곱째, 지역 주민에 대한 다문화사업 개발 및 지원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그 대상이 다문화가족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문



화 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함께하는 다문화사회를 이룩해야 한다.

여덟째, 한국어교육 운영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인증된 대표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은 교육만을 전담하고 자치구에서는 학습자의 관리와 실태 파악, 그리고 학습 홍보 및 학습자 유치 등을 분담하는 것도 효과적인 것이다.

### 3) 한국어교육 지원 체계의 강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언어 적응교육으로서의 한국어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어교사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어교육이 자원봉사자의 열성과 선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자원봉사자를 대체할 유급 한국어 교사제 도입이 시급한데, 즉 재정적, 제도적 지원에 의한 능력 있는 전문가가 양성되어 이들이 함께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여러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의 교과목에 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수법 채택이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수료자 및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수법의 보수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한국어교재 개발 및 지원 강화이다. 교재는 교수자용만이 아닌 워크북과 같은 학습자용 교재와 가족 및 배우자가 가르칠 때 사용할 수 있는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자녀 등 학습자 유형별로 이들의 체류 목적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학습자용 교재 개발과 함께 지역 문화와 방언 등을 수록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된 교재의 지원도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날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유형별로 구별되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수립해야 한다. 즉 도

시 거주 여성, 농촌 거주 여성, 구직 희망자, 다문화가정 자녀, 이주노동자 등 체류목적에 부응한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 4) 지역 거버넌스 체제 확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지방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민주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한 형태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기존의 중앙집권적이고 엘리트 위주의 정치 행위를 지양하고, 지역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권력의 획득보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실생활을 변화시키려고 하듯이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주체들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학교 기관,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등의 전문기관, 기업, NGO, 자원봉사자 등의 참여와 관심으로 구성된 지역 거버넌스 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 IV. 맺음말

오랜 역사를 통해 주변 강대국의 침략을 당하면서도 지켜왔던 우리의 민족과 문화에 대한 가치관은 이 사회의 소수자인 다문화가족에 의해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그럼에도 고유한 가치 체계와 사회 질서 규범을 유지해 가면서 이질적인 문화와의 조화와 조정을 통해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를 이룩해가기 위해서는 다문화주의를 새로운 가치로 수용하고 이러한 변화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해 내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본고에서는 광주광역시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어교육 지원정책 실태와 이 지역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한국어교육 현황 및 문제점과 그 개

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문제점으로는 지원 정책의 비효율성과 재정 부족, 그리고 한국어교육 지원체계 미비 등을 지적하였고, 한국어교육 지원정책의 개선 방안으로는 지원 정책의 강화, 효율적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 한국어교육 지원 체계의 강화, 그리고 지역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제시해 보았다.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한 결혼이주민 여성 대상의 각종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의료, 법률 지원도 원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어교육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이 강하다는 것은 일회적·형식적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을 바란다는 것임은 물론 수준별 요구에 부응하는 여러 단계의 교육을 원하는 것이며, 나아가 더 높은 수준의 심화교육도 요구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인식해야 한다. 그리하여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관련 기관이나 학교 기관 등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서의 한국어교육 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각종 지원정책을 설계하고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 참 고 문 헌 >

- 강희숙, 2009, “새로운 다문화 공동체 구성을 위한 지역 사회 및 대학의 역할”, 『광주·전남 지역 이주민 자녀의 학교 교육 현황 및 향후 대책 토론회』, 광주여성희망포럼. pp.75~82.
- 김경신, 2009, “2008년도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2008년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발표집』, 광주광역시. pp.5-47.
- 김선정, 2008, “결혼 이민자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제18차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pp.101~110.
- 박동호, 2008,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 교육. 세계화 시대의 다중언어·다문화 교육”, 『이중언어학회 제 13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이중언어학회. pp.92~95.
- 방성원, 2008, “다문화 가정 대상의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8차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pp.583~601.
- 서 혁, 2006, “다문화 가정 현황 및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인간연구 12』, 가톨릭대학교 인간학 연구소. pp.1~24.
- \_\_\_\_\_, 2009,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방향 및 원리”,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탐색 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p.25~55.
- 설동훈, 2009, “다문화사회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다문화 사회에서의 삶과 언어”, 『이중언어학회 제23차 전국학술대회 춘계대회 자료집』, 이중언어학회. pp.7~22.
- 성기철, 2008, “다문화 사회에서의 언어 교육의 과제”, 『한국언어문화학』, 제5권 제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pp.1~26.
- 신은주, 2009, “다문화가족 지원의 지자체 역할과 정책방향”, 『광주·전남 다문화가족지원의 활성화대책 토론회 자료집』, 광주여성희망포럼. pp.7~30.
- 오은순, 2009,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연구(III) -

-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탐색 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p.3~21.
- 이병규·구지민, 2009, “다문화 사회의 언어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방향, 다문화 사회에서의 삶과 언어”, 『이중언어학회 제23차 전국 학술대회 춘계대회 자료집』, 이중언어학회. pp.91~102.
- 이상규, 2008, “다문화 가정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세계화시대의 다중 언어·다문화 교육”, 『이중언어학회 제13차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이중언어학회. pp.17~22.
- 이세연, 2009, “다문화 제재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초등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천영, 2009, “광주·전남 지역 이주민 가정 자녀 현황 및 학교 교육 실태”, 『광주·전남 지역 이주민 자녀의 학교 교육 현황 및 향후 대책 토론회』, 광주여성희망포럼, pp.1~22.
- 조수진·윤희원·진대연, 2008,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학습 한국어 교재 개발의 방향. 다문화 시대의 이중언어 교육”, 『이중언어학회 제22차 전국학술대회 춘계 대회 발표 논문집』, pp.41~52.
- 조항록, 2010,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안”, 『이중언어학』, 제42호, 이중언어학회, pp.243~330.
- 주순일, 2009, “국제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향 모색”, 『광주·전남 다문화가족 지원의 활성화대책 토론회 자료집』, 광주여성희망포럼, pp.49~53.
- 채윤미, 2009,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한국문화 통합교육 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순, 2008, “다문화 시대 한국어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과제”, 『이중언어학』, 제37호, 이중언어학회, pp.287~316.
- 한신애, 2009, “다문화 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광주·전남 다문화가

- 족 지원의 활성화 대책 토론회 자료집』, 광주여성희망포럼,  
pp.39~46.
- 광주광역시, “국립 광주 다문화패밀리센터 건립 기본계획(안)”, 2007.  
10.
-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현황”, 2009. 11.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개  
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p.133~160.
- 행정안전부, 2009,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 결  
과”, 2008. 9. 5.

# Improving Support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Lee, Kwon-sik  
(Honam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s to and analyze problems with the policy support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Problem with the policy support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inaccuracy of the survey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hort-term and one-off programs; lack of specialized projects and programs; shortage of financial support for programs support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limitation of national policy support; and lack of competence and functions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2. Measures to improve the policy support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accurate survey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peci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the policy support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establishment of a central office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effective support and financial expansion of the policy support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strengthening the support system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establishment of a local governance system.

**Keywords :**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Gwangju Metropolitan City